

인천시 경우회

인천 경우회 산악회 이운기 회장 등 회원 52명은 최근 인천시 연수구 소재 문학산(240m)에서 산행을 갖고 건강을 다졌다. 이날 참석 회원들은 인천 지하철 선학역에서부터 산길을 따라 정상에 있는 衍慶亭을 지나 산불 감시초소와 문학산 계곡 속의 一松亭까지 등반을 하고 회원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경우회 활성화를 다짐했다.

광주시 경우회



최근 李莊吾회장, 韓東澤 전남경찰청장, 柳在藏자문위원장 등 전현직 경우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경우회 발전과 전 현직 유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장오 회장은 현직 후배 경찰의 발전을 위해 일익을 보태겠다고 역설했고, 한강택 청장도 경찰 수사권 독립의 타당성을 설명하여 참석자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여경 경우회



최근 이주자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여경창설 제 59주년을 맞이하여 제 2회 "여경봉사 대상자"로 선정된 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김복순 경사에게 기념패와 격려금을 전달했다. 김 경사는 지난 98년도부터 소년소녀가장 2명에게 지속적인 후원금 지원과 춘천경찰서 '여경봉사대'를 조직하여 독거노인 등 불우시설에 매월 1회씩 방문 봉사활동 가충청소년 상담 등 선도업무에 앞장서 왔다.

충남 서산 경우회



최근 이재병 회장을 비롯한 회원 45명이 참가한 가운데 1박 2일 일정으로 거제도 포로수용소, 대우조선소, 진주 축석루를 거쳐 6.25 전란시 많은 희생자를 낸 지리산 뱀사골 격전지의 충혼각을 방문하는 단합대회를 갖고 회원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안보의식을 다졌다.

전북 남원 경우회



최근 이종엽 회장을 비롯한 임원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원 경찰서 앞 주변하천과 시민공원인 산성공원 일대의 쓰레기와 오물을 수거하는 등 자연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市道·지역회 소식

강원도 경우회 전사경찰관 추모 행사



최근 최인철 회장과 전현직 경우, 유가족 등 2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전란시 영월 녹전리 전투에서 전사한 경찰관을 추념하는 행사를 갖고 고인들의 넋을 추모했다. 한편 추모행사가 끝나후 동국대학교 김부식 교수를 초청하여 안보강연회를 갖고 안보의식을 고취시켰다.

경기 분당 경우회 검·경 수사권 문제 토론회



최근 장근진 회장 등 내외 귀빈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현직 간담회를 갖고 상호 유대 강화와 회원 친목도모에 주력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효은 前 경찰청장은 「선진국형의 검경수사권 공유체제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역설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경기 포천 경우회



최근 김재룡 회장, 이운우 前 회장, 참전경찰회원, 지역회원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6.25 전쟁 55주년을 맞아 포천시 하성북리에 위치한 충혼탑을 찾아 주변에서 청소작업을 하고, 전사경찰을 비롯한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었다.

강원 횡성 경우회



최근 고만수 회장의 임원, 회원 등 22명이 참가한 가운데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경찰전적비 추념행사와 안보강연에 참석하는 한편 귀로에는 영월 주변 격전지를 순례했다. 한편 횡성 경우회는 이날 월례회를 갖고 수사권 독립문제, 신임회원 발굴영입 등에 관해 의견교환을 갖는 한편 회원상호간에 친목 도모와 단합을 결의했다.

경기 양평 경우회



최근 박성태 회장을 비롯하여 회원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관내 갈산공원에서 학원폭력근절에 대한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박성태 회장 등은 관내 학원폭력 씨름추방 및 퇴치를 다짐하고 읍내 소재 중, 고등학교 앞과 시내 번화가를 돌며 학생과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했다.

서울 중랑 경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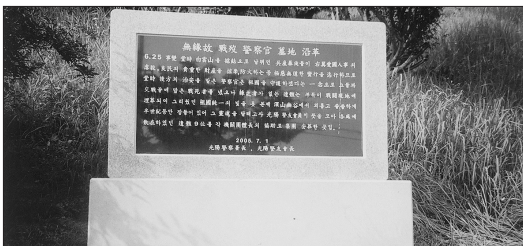
최근 김택재 회장과 김승만 이사는 중랑경찰서가 주관하고, 북한 이탈주민 세대와 경찰관, 주민 등 3인이 일가족으로 연결되는 「북한이탈주민 한가족 결연식」에 참가하여 결연을 맺었다. 한편 중랑경우회는 정기 이사회를 갖고 회원 단합을 다졌다.

전북 정읍 경우회



최근 최장림 회장과 박종남 사무국장이 정읍경찰서 상반기 정년 퇴임식에 참석해 퇴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이들을 초청해 경우회에 대한 홍보를 하고 경우회원으로 등록한 것을 축하했다.

전남 광양 경우회



황호선 광양경찰서장이 6.25사변 당시 백운산을 거점으로 날뛰던 공산폭도들과 교전 끝에 전사한 무연고 경찰관들의 묘지들을 새롭게 정비하고 관리해 줘 경우들과 지역주민들로부터 고마움을 사고 있다.

대전 중부 경우회



최근 이득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금년도 상반기 정년 퇴임하는 대전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계 경

위 김팔기 등 5명을 초대하여 오찬을 함께하는 한편 그동안 대민 치안서비스에 헌신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이들에게 경우회 등록을 적극 권장했다.

대전 서부 경우회



최근 조만휘 회장을 비롯한 회원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도마교에서 안영교까지의 유등천변 약 2Km를 오가며 자연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참가 경우들은 “환경오염은 곧 죽음이다” “자연보호로 지구를 살리자.”라고 쓰여진 어깨띠를 두르고 잔디밭과 주변에 버려진 오물 및 생활쓰레기를 줍고 전단을 나누어 줘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전북 정읍 참전경찰회



최근 황만용 회장을 비롯한 회원 일동은 6.25 제 55주년을 맞아 임실 호국원과 지리산 뱀사골 충혼탑에 참배한 후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비는 한편 부근일대에 무성히 자란 제초 작업을 펼쳤다.

서울 종로 경우회

최근 장태규 회장을 비롯한 지역회 임원들은 신용선 종로 경찰서장과 각과장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전·의경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한편 신용선 서장은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위문품을 전달한 종로경우회 선배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한편 전현직 유대강화를 다짐했다.

부산시 참전경찰회

최근 민영아 회장을 비롯한 회원 42명은 6.25 전쟁 제 55주년을 맞아상반기 순례행사의 일환으로

지리산 일대 전적지 순례를 가졌다. 이날 참석 회원들은 전사경찰관 48위가 봉안된 곡성군 태안사 충혼탑과 인민군을 사살 격퇴시킨 곳에 건립된 승전탑을 참배하고 영령들의 명복을 빌었다.



충남 예산 경우회



최근 김병호 회장을 비롯한 회원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관내 예당 저수지 상수원 일대에서 자연보호 활동을 펼쳤다. 이날 회원들은 깨끗한 환경은 우리 손으로 라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어깨띠를 두르고 주변에 버려진 오물수거 등에 앞장섰다.

충남 아산 경우회



이재열 회장을 비롯한 회원, 현직 경찰관, 유가족 등 2백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에 소재한 경찰 충혼탑에서 현충일 및 제 55주기 전사경찰관 추모제를 갖고 전사경찰관들의 넋을 추모했다.

경북 구미 경우회



최근 김재수 회장을 비롯한 회원 및 자문위원 등 1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해평 청소년 수련장에서 상반기 활동실적 평가를 갖고 하반기도 지역주민과 후배경찰관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치안협력과 사회 봉사 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전남 광양 경우회



최근 관내 음식점에서 김수동 회장을 비롯한 전남 각 시군 회장과 이사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갖고 당면현안을 의결했다. 한편 황호선 광양서장은 이날 선배 경우들이 행사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광양제철소와 컨테이너 부두 견학을 주선하는 한편 격려금을 전달했다.

경찰뉴스

「성동경찰 25시」 創刊 1주년 맞아

김용관 서장 특수시책으로 民·警 가교역할 충실히 수행



성동경찰서에서 발행하는 「성동경찰 25시」라는 치안신문이 창간 1주년을 맞았다. 조만간 제 13호가 나올 예정인 「성동경찰 25시」는 다양하고 알찬 편집으로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성동경찰서의 치안시책을 홍보하는 한편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성동경찰 25시」는 지난해 7월 부임한 김용관 서장의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월 1회 매월 중순경 7천여부가 발간되는데, 성동경찰의 중점 추진시책, 지역저명인사들의 칼럼, 건강관련 정보, 직원들의 문학작품 등 다양한 내용들을 게재하여, 유관단체, 경찰서 및 지구대, 그리고 일반주민들에게 배포되고 있다

특히 많은 경찰관들과 전의경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성동경찰홍보지 결정체로 자리잡고 있는 「성동경찰 25시」는 전의경들의 글과 사진도 게재하고, 발간된 신문을 소속된 전체 전의경 부모들에게도 보내줌으로써 이들의 관리 및 부모들의 궁금증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성동경찰 25시」가 알찬 운영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자, 서울경찰청도 자체 홍보지인 「서울 치안뉴스」제작에 자문을 구했고, 관악경찰서에서 발간하는 「관악 폴리스」, 서울 중부소방서에서 발간하는 「중부소방뉴스」도 성동경찰서의 자문을 받아 자체 홍보지를 발간하게 되었다. 김용관 서장은 『「성동경찰 25시」는 경찰홍보는 물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과 경찰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뿐만아니라 성동치안행정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투리 봉급’으로 이웃사랑

울산해경, 직원 3백여명이 9개월째 성금 보태

울산해양경찰서 전 직원 300여명이 9개월째 매월 자신들의 자투리 봉급을 털어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에 보태는 등 작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울산해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직원들이 받는 봉급의 끝자리수 중 1천원 미만의 자투리 금액을 적립하고 있다. 실제 얼마되지 않는 자투리 봉급이지만 일부 직원의 경우 여유되는 대로 1천원, 1만원씩 개인별로 정성을 더하기도 한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울산해경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자투리 봉급에 실은 사랑나누기 운동’은 전 직원의 지지 속에 9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는 것. 울산해경은 올해 상반기에 적립한 자투리 봉급 모금액을 지역 장애인복지시설과 독거노인, 난치병 직원 가족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했다. 울산해경은 자투리 봉급 모금 뿐 아니라 명절이나 연말연시에도 따로 자발적인 모금을 해 지역의 불우이웃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檢·警 수사권 分權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 합시다

지난 5월 17일 제 29차 정기 총회시 檢·警 수사권 분권을 위한 서명운동을 긴급안건으로 채택하여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면서 그 취지문과 서명부를 전국 경우회에 보내 드린 바 있고 120만 회원의 이름으로 중앙일간지에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국가와 경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래 서명부에 서명 후 절취하여 빠른 시일내에 우송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 취 선				
연번	성 명	주 소	서 명	비 고
1				
2				
3				
4				
5				

※보내실 곳 : 서울 중구 신당동 171번지 대한민국재향경우회